

# 포천 동남고등학교 책키북키학교 3관왕

## 1,2학년 전학생이 독후감 모음집 발간 등 독서운동 앞장



동남고등학교 명형수 교사가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책키북키학교'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문화관광부가 올해 '정소년책읽기 운동'의 하나로 마련한 '책키북키학교'에서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가 3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 화제가 되고 있다.

동남고등학교는 지난 23일 20개교 60여명에 대한 시상식에서 우수학교·우수학생·우수지도교사상을 받았으며 지도교사에게 유럽도서관 탐방연수까지 주어지는 4관왕에는 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 253개교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동남고등학교 '1인 1책읽기' 운동을 장려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생이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독후감 모음집을 제작했다.

또한, 독서신문을 발행하고, 책을

사용한 연구수업, 패러디 연극 등은 CD 및 비디오로 제작했으며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책키북키'는 독서가 지성의 키를 키우는데 열쇠 역할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걸스카우트연맹은 지난 6월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책읽기 프로그램을 받아 그중 내용이 알찬 253개교를 '책키북키 학교'로 선정해 도서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전교생, 1개반, 동아리 단위로 참가한 학생수만도 12만여명에 이르며 7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로 진행된 결과를 심사해 지난 23일 20개교 60여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것이다. 조대행 교장은 "전교생이 책임습관을 통해 보다 훌륭한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훌륭한 수상의 영예를 통해 동남고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명형수 '책키북키' 담당 교사는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1,2학년 전 학생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 과제로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각자에 맞는 도서선택으로 전학생이 책을 읽도록 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동남고 학생들의 이같은 책임기를 통해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은 물론 밝고 명랑한 학교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 교사탐구 1 연극영화 전공 국어교사 안영숙

경북중학교 연극부 활성화 담당

## "연극은 총체적 예술"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다. 일선교사들의 숨겨진 노력의 결실이 우리사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교사들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교사들의 숨은 노력을 집중탐구하여 보도함으로써 이 시대 학교교육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포천시 가산면 감압리에 위치한 경북중학교(교장 정일영)에 지난 3월 연극부가 신설됐다. 그리고 8개월만에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학생들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눈물이 핑 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속 저 아래에서부터 뚝뚝하게 치솟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경북중학교 연극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극을 공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안영숙(51,사진) 교사를 만났다.

지난해 경북중학교로 부임한 안 교사는 "동남중학교에서 새내기 교사로 2년 동안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되어 지난해 공모특채로 전환하면서 포천을 선택하여 경북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 교사는 "연극을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좋은 점은 말하기와 표현력이 향상되고 협동심을 길러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역대 대통령중에서 연극을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연극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한 교육임에는 분명하다고 한다. 안 교사는 따라서 "대한민국 학생이면 누구나 연극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연극을 정규과목으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6회 포천연극제에 '위자료'라는 작품으로 출품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경북중학교 연극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안 교사는 "포천에 연극협회가 있고 연극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현재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2005년2월에 석사학위를 받게되는 안 교사는 동두천교육장상,경기도교육감상,양주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담당교목인 국어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경북중학교에 부임한 안 교사는 학교 홈페이지 합리적인 운영 관리로 2003경기도 학교 홈페이지 경연대회 금상 수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문화관광부 주관 중학교 연극 교재 교열위원회 포천시 국어교과 연구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글짓기 및 웅변대회에서 포천시 중등부 최우수상 수상 학생과 제7회 경기도 학생웅변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학생을 지도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으로 동료교사분들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기도 했다.

포천연극협회 이희용 회장의 포천연극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안 교사는 "경북중학교 연극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청소년들의 연극 교육의 이정표를 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1명의 노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안영숙교사는 경북중학교 연극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극을 공부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아름다운 가족 14

##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진실한 대화



김영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북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대화가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모르는 부모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대차이인가 아니면 부모의 욕심 때문인가?

대화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소리굽쇠가 울리는 현상과 같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소리굽쇠 2개를 나란히 세워 놓고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도 같이 울게 되어 있다.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어 놓았다는 것과 같다.

한쪽 굽쇠만 울고 다른 쪽 굽쇠가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동으로 만들어진 자녀의 굽쇠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부모의 굽쇠가 때린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이

굽쇠는 어느 정도의 울림을 가져올까. 물론 약간의 울림은 있겠지만 서로의 목소리 깊이, 마음속 깊이 전달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울림이다.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자녀를 꾸짖어야 한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꾸짖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안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야! 이 녀석이 너 정말 혼나 불래, 응?' '너 도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와 같은 표현은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됨됨이나 성품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되므로 반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저항감만 불러일으키게 된다. '어휴!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아빠하고 풀었잖아. 그새 다 잊었어?' '공부 좀 해라. 이 멍청한 녀석아!' 이런 표현보다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지 안 나왔구나! 속상하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자!'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서로가 공유했던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해결책도 찾을 길이 열린다.

둘째, 부모의 감정을 진실되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자녀에게 미안한 일을 했으면 사과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한다. 진실함은 신뢰형성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정신 안 차릴래?' 라는 표현 보다는, '네가 덩벼거리는 비탈

에 아빠가 화 나셨잖아. 제발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구나.' 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렬하게 받아들여진다. 셋째, 부정분의 사용을 억제하고 긍정문을 자주 사용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표현은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부정적인 표현은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반발심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방해한다. '텔레비전 보지 마!' '반화책 보지 마!' 라는 표현보다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을 정해서 보거나 뒤에 앉아서 볼래?' '반화책을 보는 것은 좋은데 선별해서 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식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넷째,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부모가 사용하는 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되는데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입술 언어,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는 얼굴 언어,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체 언어, 그리고 몸 전체에서 풍기는 정서 언어가 그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부모는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입술 언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서 입술 언어보다 신체 언어, 분위기나 느낌으로 표현하는 정서 언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딸에게 아빠가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부드러운 미소로 눈을 맞춘 후, '힘들지?' 라고 말

했다고 해보자. 이 말은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4 가지 언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자녀의 뉘림을 평가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쉽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너 같이 게으른 아이는 처음 본다. 너는 정말 이 에이 속한 썩히는구나.' 라는 표현보다는, '너는 일 처리가 참 늦은 것 같은데 내가 뭘 도와줄까?' 혹은, '네가 그렇게 고집만 피우니 정말 속상하다.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녀의 반응은 금방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녀석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야 행동이 변할까?'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녀석이 달라질까?' 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자녀와의 대화 프로그램 마지막 단계는, 자녀와 대화하는 실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 훗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다지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물질이 아니라 따뜻한 정감이 오고가는 가족문화라는 것을 부모는 잊지 말아야 한다.

### 윤종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74. 10분간 쉬며 커피 좀 마십시오.  
Why don't we take a ten minute break and get some coffee?  
아이언우이케이엔미브레이크 앤 갱윅커피?

☞ 좋습니다.  
Sounds good.  
싸운스 굿.

75. 여보, 점심 뭘 좀 시키십시오.  
Honey, let's order something for lunch.  
하니, 랫소어뽀뽀뽀뽀뽀?

☞ 피자는 싫은데요.  
I don't like pizza.  
아이리라이피자

☞ 내 말을 못 알아 듣나?  
Don't you get the message?  
뎃츄갱터메이시?



☞문의:윤종성

(017-723-4977)colyoon@nate.com

# 인조대리석 가공기계의 선두주자 성진기계산업



대표 이병욱



생산품의 전문화, 고급화로 생산공정라인에 꼭 필요한 전문기계를 생산, 판매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기업

### ◆ 영 업

- 목공기계 제작전문업체 (일반기계, 특수기계)
- 목재가공 자동화라인 설비
- 인조대리석 가공기계 및 자동화 라인설비
- 알루미늄, 아크릴 가공기계 제작
- 중고기계 매매 및 알선

